

연말 추위 녹이는 마음 따뜻한 연극 공연

양로원 탈출기

광주 원로 연극인들의 감사 선물

시유어겐

포장마차에서 펼쳐지는 세상사

아시아인 스위트

행복의 의미를 찾아가는 가족들

지난해 연말, 지역 연극인들은 40년 넘게 연극판을 이끌고, 지켜온 원로 선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행복한 선물'을 전했다. 원로 연극인들과 지역 배우들이 함께 연극 '막차 타고 노을보다'를 무대에 올리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던 것. 광주 연극협회(회장 정순기)가 처음 기획한 공연은 관객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전했다.

올해도 광주 원로 연극인 합동공연이 펼쳐지는 것을 비롯해 각 극단들이 연말의 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연극을 잇따라 무대에 올린다.

▲양로원 탈출기=광주연극협회는 올해 광주원로연극인 합동공연으로 '양로원 탈출기'를 준비했다. 21~23일 오후 7시30분 예술의 거리 공동예술극장.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원광연씨가 연출을 맡은 '양로원 탈출기'는 강원도의 한 양로원을 배경으로 노인들의 잃어버린 꿈과 가족애를 그린 연극이다.

이번 작품에는 2001년 시력을 완전히 잃은 후 지팡이와 다른 배우들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무대에 섰던 윤광철 전 예총 회장을 비롯해 사업가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무대에 서며 100여편의 작품에 출연해 온 정관선, 박정기, 김중진씨 등 원로 연극인이 다시 참여했다. 여기에 올해는 김태욱씨가 빠진 대신 조영철, 정상섭씨가 함께 호흡을 맞췄다.

강원도 산골에 위치한 희망양로원. 전직 사업가 최노인, 치매환자 윤여사, 그녀를 살뜰히 돌보는 고향친구 김여사, 스스로 양로원에 들어온 잠경쟁이 정여사, 전직 군인 출신 양노인, 자식 자랑이 끊이지 않는 조노인 등이 이런 저런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중이다.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는 듯하지만 노인들은 자신들을 단지 돈줄로 여기는 원장



지난해 '막차타고 노을보다'에 출연했던 원로배우들. 올해는 '양로원 탈출기'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다.



연극 '시유어겐' 한 장면.

을 피해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하는데...

이기인, 강유미, 노희설, 윤미란, 양정인, 손다희씨 등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문의 062-523-7292.

▲시유어겐=극단 '사람사이'가 무대에 올리는 '시유어겐'은 누구나 마음이 따뜻해지는 포장마차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23~31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공연장.

마음 좋은 주인장이 운영하는 포장마차 '삼선녀네 집'. 포장마차에 들러 늘 혼자 술 마시던 단골손님들이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시게 되면서 각자의 사연들을 펼쳐놓

는다. 말 못하는 소녀 시유는 이 모습을 모두 바라보고, 그녀를 통해 일상의 특별함과 만남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담한 크기의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작품이라 따뜻한 온기의 전등이 빛을 밝히고 우동 국물이 끓고 있는 포장마차에 관객들이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극중 포장마차 주인은 무대에서 직접 요리도 한다. 관객들은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다.

극단 대표가 송정우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오영목, 유지영, 강인영, 한종신, 이영환, 이슬, 강누리, 강예찬씨 등이 출연한다. 다음카페 '극단 사람사이'에서 선착순

무료 예약 가능하며 관람료는 감동후불제. 문의 062-670-7947.

▲아시아인 스위트=극단 청춘의 '아시아인 스위트'는 '가까우면서도 또 먼' 가족에 대한 이야기다. 23~30일(평일 오후 7시30분, 토·일요일 오후 5시) 예술극장 통(동구 호남동 NC웨이크업 옆).

가족이 모두 떠나고 홀로 의상실을 지키던 치요코는 어린 시절 사고로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다. 명절을 앞 둔 날, 집을 떠났던 엄마 미쓰코와 남동생 시로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가족간에는 묘한 분위기가 흐르고 여기에 아내가 있으면서도 치요코의 집에 얹혀사는 아사다와의 관계까지 얽히면서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다.

각자 외로움을 감추고 집으로 돌아와 서로를 이해하며 행복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외로움에 지친 영혼들을 위로한다.

국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재일교포 정의신 작가의 작품으로 극단 대표 오설균씨가 연출을 맡았다. 김은미, 고난영, 오설균, 김경우씨가 출연한다. 티켓 가격 일반 2만원, 학생 1만 5000원. 카페 예매시 할인 혜택.

극단청춘 (다음카페) cafe.daum.net/cctheater. 문의 062-430-52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바다에 대한 헌사와 순애보

강성희 진도경찰서장 시조집 '바다에 묻은 영혼' 펴내

현직 경찰서장이 시조집을 발간해 화제다. 주인공은 강성희 진도경찰서장.

강 서장은 최근 "바다에 대한 헌사와 순애보"를 담은 '바다에 묻은 영혼'(고요아침)을 펴냈다. 모두 70여 편이 담긴 작품집에는 애잔한 대상에 대한 자애의 심상과 옹기 얽은 것에 대한 비판적 상념이 깃들여 있다. 또한 바다와 육지에서 30년 넘게 경찰로 근무하면서 경험하고 느꼈던 내면의 쓸쓸함과 남모름 이품 그리고 애환의 심경도 담겨 있다.

표제작 '바다에 묻은 영혼'은 불법의 국어선을 나포하다 순직한 목포해양경찰서 고 박경조 경위와 인천해양경찰서 고 이청호 경사를 보내는 아픔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해변을 떠도는 세이렌의 노랫소리 / 그대들 켜 하프는 안개 속에 떠돌고 / 한 울의 물방울에도 밀려드는 그리움" 이처럼 작품에는 바다를 토대로 한 화자의 웅성깊은 시선이 담겨 있다.



특유의 서성적 깊이와 간결한 어조는 탄탄한 시적 성취를 이뤘던 기상 시인 못지않은 울림을 준다. 시의 본질과 지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해설을 쓴 경기대 교수인 이지영 시인은 "바다와 더불어 살아온 삶의 무늬와 애환이 있어 무게감이 느껴지고, 세월의 흐름을 잘 받아들이며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궁정의 에너지가 엿볼 수 있다"고 평한다.

무안 출신인 강 서장은 2012년 '시조시학' 시조로 등단했으며 시조시학 젊은 시인상을 수상했다. 목포해양경찰서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목포시문학회, 무안문협, 열린시학회, 시조중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문인협회 '숲속의 전남 책속의 전남' 출판기념회

전남문학상·여성백일장 시상

전남문인협회(회장 박형동)가 최근 '숲속의 전남 책속의 전남'(한림출판)을 발간하는 출판기념회(사진)를 보성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했다.

책 발간은 전남문협이 도내 8000여 개의 자연마을 주민들이 돌려가며 읽을 수 있는 책의 출판 보급을 위해 전남도 지원으로 이뤄졌다.

책에는 '숲속의 전남'과 '책속의 전남', 그리고 '이야기 속의 전남'과 '문학 속의 전남'을 꼭지로 한 글들로 엮여 있다. 특히 수록된 글은 전남도내 문인들의 작품은 물론, 각 시군 전남문화관광해설사들이 담아낸 갖가지

로운 이야기들과 전남여성백일장에서 수상한 일반인들의 작품도 실려 있다.

박형동 전남문인협회장은 "도민 다수를 독서 상대로 한 문화예술잡지 출간은 전국에서 유일한 사례로 책을 읽는 전남의 풍토 조성을 넘어 문향 전남의 자랑과 긍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출판기념회가 끝난 후에는 제39회 전남문학상 수상자인 김용국·이태웅·사홍만 시인에 대한 시상식과 제29회 전남여성백일장 장원에 당선된 홍성순 씨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이 내년 1월부터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휴관일인 월요일에도 전면 개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매주 월요일과 1월1일에 휴관했으며 내년부터는 1월1일, 설날·추석 당일에만 문을 닫는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이에 앞서 올해 10월부터 휴관일을 포함해 오전 8시부터

국립광주박물관 내년 1월부터 월요일도 휴관 없이 전면 개관

터 오후 9시까지 정원과 옥외유물, 편의시설에 대해 개방 시간을 확대 운영했다. 박물관측은 월요일에도 운영하면서 국립광주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공연·영화·연극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도서자료실을 증축해 누구나 찾아와 독서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gwangju.mus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570-701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노비타송년맞이
고객감사**SALE**



2016.12.05~2016.12.31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본사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 www.novita.co.kr

<p>선물1 반려 참 편한 비데 Comfort NEW</p>  <p><small>발라 60-NA423(설치비 별도) 60-NA430(설치비 별도)</small> 279,000 / 249,000 <small>+브레드 파워 액티브 5종</small></p>	<p>선물2 합리적인 가격으로 실속형 비데 특가</p>  <p><small>60-NA307(AS)설치비 별도 60-NA321(설치비 별도)</small> 159,000원 159,000원</p>	<p>선물3 새 비데를 할인가로! 비데 보상 판매</p>  <p><small>60-NA430(설치비 별도)</small> 219,000원 <small>*티사 제품 가능</small></p>
--------------------------------------------------------------------------------------------------------------------------------------------------------------------------------------------------------------------------------------------------------------------------------------------------------------	------------------------------------------------------------------------------------------------------------------------------------------------------------------------------------------------------------------------	--------------------------------------------------------------------------------------------------------------------------------------------------------------------------------------------------------------------------

구입문의 | 비데프라자 (062)515-1144